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3.22~2017.3.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마음의 봄인 행복에 대해 나눈 대화록



야단법석2

법륜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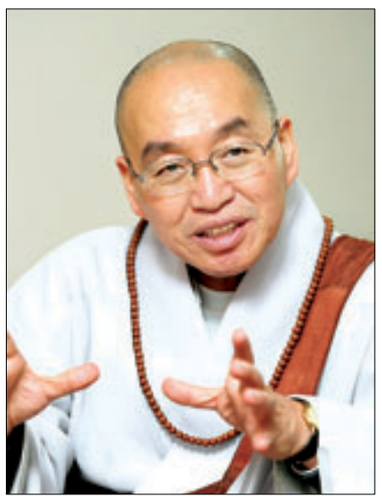
정토출판 펴냄

1만 6천원

법륜 스님〈사진〉의 새책 〈야단법석, 그 두 번째:지금, 여기서 행복하라〉가 새봄을 맞아 출간됐다. 야단법석 1권이 2014년 세계 115개 도시를 돌며 진행한 강연을 기록한 것이라면, 신간 〈야단법석, 그 두 번째〉는 2015년 한해 동안 많은 이들과 마음의 봄인 행복에 대해 나눈 대화록이다.

법륜 스님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연을 진행한 것은 이미 한두 해가 아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법륜 스님의 대중 강연은 2011년 100회, 2012년 300회, 2013년 100회, 2014년 세계 115회 등 지금까지 1000회를 넘어섰으며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강연을 통해 스님과 직접 만났다. 강연이 펼쳐진 장소 또한 구청과 시청 강당, 지역의 공연장, 교회, 성당, 공원까지 사람들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다. 강연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는 날이나 멈추지 않았고 참가하는 사람 역시 20대 청년, 학생들부터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성별을 넘나들었다. 강연의 주제는 또 어떤가. 그날그날 쏟아진 고민과 의문들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소재가 되어 가족갈등이나 개인의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이슈와 국가전망 등 참으로 다종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래서 야단법석이다. 법당에 마련된 법상서 거룩하게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 자리를 펼쳐 누구나 와서 편하게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원래의 의미 그대로의 야단법석이다. 법륜 스님 강연은 잘 알려진 대로 즉문즉설로 진행된다. 그날 현장서 나온 질문들이 그날 강연의 핵심 소재이다.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질문자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때로는 스님으로부터 정신이 번쩍 날 만큼 따끔한 야단을 맞기도 한다. 청중은 청중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가운데 공감하고 자신을 돌아본다. 법륜 스님의 강연은 무엇보다 유쾌하다. 에두르지 않고 곧바로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들어간다. 내 문제이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쉽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던 얘기들을 밝게 드러낸다. 듣다 보면 마치 오래 묵은 종기를 짜낸 것처럼 속이 시원해진다. 그 날카롭고 명료한 촉이 따뜻한 시선과 유머로 싸여있다. 한바탕 실컷 웃고 나면 돌아가는 발걸음은 강연장을 들어설 때와 다르게 가벼워진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외 강연 1천회 넘어
다양한 소재의 즉문즉설 법문 대중에 인기
법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고스란히 전달

〈야단법석, 그 두 번째〉에는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화체 전개로, 고민이 해결돼 가는 과정을 가능한 그대로 살렸다. 법륜 스님이 익숙한 독자라면 여기에 더해, 해가 갈수록 더 따뜻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법륜스님의 연륜 또한 생생히 느낄 수 있을 터이다. 100여 회 진행된 강연에서 만난 6백여 명의 질문자들이 개인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며 스스로 길을 찾아 가는 모습은 함께한 5만 5천여 청중들에게도 큰 울림의 장이었다. 그 일부를 이 책에 담아보았다.

따뜻했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날씨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조금씩 더 자라나는 봄볕을 느끼는 요즘이다. 세상에 봄이 오는 것처럼 당신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는지? 또 하나, 아무리 추운 날에도 마음만큼은 봄이 가득할 수 있음을 아는지? 꽁꽁 얼어 답답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맑고 밝고 가벼워지는 것. 지금 여기 행복한 마음, 그것이 바로 봄의 마음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법륜 스님**은?

스님은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으로 한 '정토회(www.jungto.org)'를 설립했다. 정토회에서 정토 수행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을,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평화와 국제이해 부문)을, 2007년에는 민족화해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함께 사랑한다는 것,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공저)〉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인간 붓다〉 〈스님의 주례사〉 〈인생수업〉 〈야단법석1〉등 다수가 있다.

민족적 정서 짙은 아리랑 이야기 풀어내



깨침 아리랑

대현 지음

올리브나무 펴냄

1만5천원

"하늘은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으며 산은 베개 삼아 구름은 병풍 삼아 두르고 달은 촛불 삼아 밝혀놓고 바닷물은 술통 삼아 해탈주를 마시는도다
(후렴) 거짓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으니 거짓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거짓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은 고개로 넘어간다"
〈진묵 대사의 '깨침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인다. 아리랑이 한국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문화 탯줄로서 자리잡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인이라면 요람에서부터 아리랑 노래를 배운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민족의 노래이지만, 사실 아리랑이라는 세 글자의 뜻부터가 아리송하다.

먼저, '아리랑의 아리'는 '고운'이라는 뜻의 옛말이고, '랑'은 '임'을 가리킨다는 속설이 있다. 옛글에서는 '아리'가 '아름답다' '곱다'의 뜻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현대 한국어 '아리따운'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리랑'은 '고운 임'을 뜻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아'는 '나 아(我)', '리'는 '떠날 리(離)', '랑'은 '사내 랑(郞)'으로 풀이해, 나와 헤어진 남자, 즉 '날 버린 남자'를 뜻한다는 설도 있다. 딱히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각기 거기에 합당한 가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 속에는 민중의 통곡 분노, 항변, 절규, 그리고 피와 반란이 스며들어 있다. 왜 어떤 사연이 있기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고 노래하게 됐을까?

이 책은 지방마다 다른 가사로 불려지는 아리랑의 유래와 기원을 소개함으로써, 아리랑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준다.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흐르는 공통분모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랑은 누구에 의해 언제부터 불려 졌을까? 신통묘술과 기행으로 널리 알려진 진묵대사(1562~1633)를 시초로 꼽는데, 대사가 남긴 소위 '깨침아리랑'에 따르면 아리랑의 아는 거짓나요, 리는 버림, 랑은 참나를 뜻한다. 대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를 거짓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거짓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은 고개로 넘어간다'로 해석한 것이다.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50안거를 성만했을 정도로 선승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대현 스님은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정서적 바탕을 이루듯이, 우리네 삶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할 열마당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우리 선조들이 정월 초하루와 팔월 보름 추석 때면 왜 어떤 연유로 차례를 지냈는지, 관혼상제 때면 왜 밤과 대추와 곶감을 빠트리지 않고 사용했는지, 거기에는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

아리랑 유래와 기원 상세히 소개
진묵 대사의 〈깨침아리랑〉이 시초
'옴 명상' 수록… 염불, 명상, 호흡

어하는 정신적 유산이 깃들어 있음을 말해주는 '아름다운 유산', 옥야경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바치는 '어진 아내의 길' 등 현대인들이 삶의 바탕에 깔고 살아갈 윤리적인 기준과 지혜를 재미난 예화와 함께 펼쳐낸다.

마지막으로 '옴 명상법'은 특별한 수행처를 찾을 것 없이 누구든지 가정에서 누구의 지도도 없이 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서, 염불과 명상, 호흡법을 결합시킨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대현 스님**은?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서 안거 후 제방선원서 50안거를 성만했다.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서 정진중이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 있는 깨달음, "아리랑"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깨침 아리랑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독특한 한(恨)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깃든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보는 일은, 한맺힌 아리랑 노래를 "깨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 대현 스님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셨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신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시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 대현 지음 / 264쪽 / 값 15,000원

"나"를 떠나서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나리니
여보게들, 제발 제발
이 "나"를 속살 깊이 연구하여 보세나.
길은 안으로 안으로 놓여져 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위빠간화선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위빠간화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하여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불교의 근본 핵심이자 바탕이 되는 부처님의 생애를 널리 알리는 일은 곧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산청 정각사에서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를 널리 알리고자 사찰 및 개인에게 책값의 50%에 해당하는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문의 010-9772-4588, 055) 972-1109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